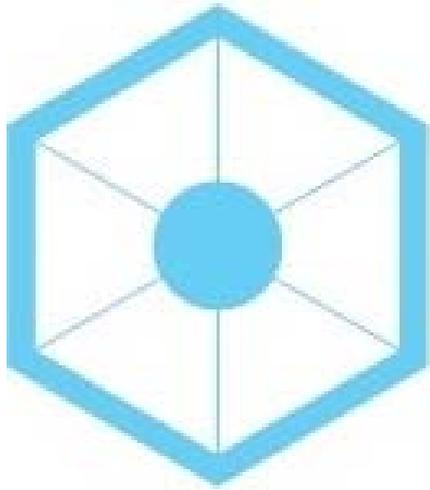


매체 소개서

(부자동네 타임즈 •  세계타임즈)



회사개요

회 사 명 : (주)부자동네타임즈

회 장 : 이 채 봉

대표이사 : 이 채 봉

사업분야 :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보험대리업,대리운전업,렌트카업,금융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상품권발행 및 매입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행업,지역신문 발행
전광판 뉴스 및 광고

설 립 : 2000년 6월22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18F(한강로3가,삼구빌딩)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4747

사업자등록번호 : 110-81-46656

연 락 처 TEL 1899-8218 FAX 02)717-7273

언론사의 지향 가치 철학

- 본지는 전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신문 지향입니다.
- 전국 핫뉴스를 만드는 신문입니다.
- 철저하게 경제 분석을 해 지식, 재테크, 기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사작성을 합니다.

신문(인터넷신문) 윤리강령

- 언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 1) 표현의 자유
 - 2) 객관성 및 공정성
 - 3) 이해의 상충
 - 4) 미성년자의 보호
 - 5) 취재/편집기준 마련
 - 6) 이용자 권리 보호
 - 7) 윤리기구의 설치 운영

취재 및 편집인력현황

- 편집부 5명
- 본사 취재기자 26명
- 특별기획취재팀 6명
- 광역시 취재본부
 - 부산취재본부장 1명 기자7명
 - 인천취재본부장 1명
 - 대구취재본부장 1명
 - 광주취재본부장 1명
 - 대전취재본부장 1명
 - 울산취재본부장 1명
 - 경기취재본부장 1명
 - 충북취재본부장 1명
 - 충남취재본부장 1명
 - 전북취재본부장 1명 기자4명 광고1명
 - 전남취재본부장 1명
 - 경북취재본부장 1명
 - 경남취재본부장 1명
 - 강원취재본부장 1명
 - 제주취재본부장 1명
 - 세종취재본부장 1명 기자1명
- 시민기자 - 전국광역시 시,군,구

기사생산량

- 전체 생산량 10,000건
- 일일 생산량 300건
- 자체 생산량 250건
- 외부 생산량 50건

매체소개

세계타임즈는 국민들이 지구촌에 시선을 맞춰, 과거 현재를 조화롭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신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타임즈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구촌 소식을 전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하고, 국민들과 전세계 동포들의 소망인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로운 나라가 구현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고 있는 국가적 환란이 수습되도록 보수와 진보가 대화를 나누게 하는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타임즈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 회초리를 들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상생을 도모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이 미래에 보다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구촌 세상의 변화상과 함께 미래산업 제안 및 선진국의 각 현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세계타임즈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전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즉 매크로적 관점과 마이크로적 관점을 국민들이 함께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타임즈와 함께 발행 중인 부자동네타임즈 라는 독특한 이름의 신문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세계타임즈 창간 이래 크고 작은 수많은 특종이 있었지만 가장 큰 특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타임즈, 부자동네타임즈를 창간한다고 선언한 창간사입니다. 감히 최대 특종이라고 자부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 주재기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주재 기자들의 노력으로 여타 언론과 달리 지방 소식이 강한 신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구촌의 다양한 사람들의 소식도 전하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신문 부자동네타임즈
세상의 핫뉴스를 만드는 세계타임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사는 기쁜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혁

2006년

- 09월07일 :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 부자동네타임즈 등록
(등록번호 서울 아03067)
- 12월01일 : 인터넷신문 부자동네타임즈 발간

2007년

- 03월22일 : 문화관광부 종합일간지 세계타임즈 등록
(등록번호 서울 가50106)
- 04월23일 : 세계타임즈 창간

2010년

- 03월23일 : 문화관광부 종합일간지 데일리 부자동네타임즈 등록
(등록번호 서울 가00333)
- 04월01일 : 종합일간지 데일리 부자동네타임즈 창간

2011년

- 09월21일 :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 세계타임즈 등록
인터넷신문 세계타임즈 창간

2011년

- 07월01일 : 인터넷신문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창간
- 07월20일 : 인터넷신문 대구부자동네타임즈 창간
- 08월10일 : 인터넷신문 진주부자동네타임즈 창간

2016년

- 09월 : 광역시 17개시도 인터넷신문 지역판 운영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세종)

2017년

- 05월10일 : 편집인겸편집국장(부사장)조원익 취임

2018년

- 01월 : YOUTUBE 콘텐츠 제휴
- 02월 : NAVER TV 콘텐츠 제휴

매체

부자동네타임즈

창간일 : 2006년 12월 01일

대표전화 : 1899-8218

FAX : 02)717-7273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0, 18F(한강로3가, 삼구빌딩)-우04373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신문사, 전광판뉴스(광고)지역신문발행,옥외광고

홈페이지 : www.bujadongne.com



세계타임즈

창간일 : 2007년 04월 23일

대표전화 : 1661-8385

FAX : 02)717-7273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0,18F(한강로3가, 삼구빌딩)-우04373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신문사, 전광판뉴스(광고)지역신문발행,옥외광고

홈페이지 : www.thesegye.com

